

서울시가 저소득층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장애검사를 지난해에 비해 대폭 축소, 저소득층 모자보건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정신박약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장애검사의 올해 목표횟수는 1천8백50건으로 지난해 설정된 검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일부 검사능력을 갖춘 병원들로 검사 의뢰망을 구축하고 주요병원들에 대해 해당장비의 수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대부분의 병원에는 선천성대사장애검사를 위한 설비가 없으며 국

미 검사가 일반화돼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장비 미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검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천성대사장애는 생후 3~7일 사이에 조기발견할 경우 호르몬요법·식이요법·약물 등으로 치료해 정상에 가깝게 하거나 완치할 수 있다.

저소득층 모자보건사업 대폭 축소

사회복지부문 예산 삭감 여파

전년대비 선천성대사장애검사 54% 줄어

사 목표횟수 4천60건보다 54%인 2천2백10건이 줄었다.

시는 "이처럼 선천성대사장애 검사횟수를 줄인 것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올해의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박아 발생률을 줄이고 이 검사를 일반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사와는 별도로 일반인들이 출산과 동시에 자비부담으로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장애를 검사도록 하는 방

내 병원중 검사장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만 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선천성대사장애는 아미노산 분해효소 등 특정한 소화효소가 없어 미처 분해되지 못한 물질이 뇌 등 신체 주요 부위에 축적돼 독성을 일으켜 정신박약 등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정신박약 유병률이 높은 구미 선진국과 일본에서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정박아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신생아선천성대사장애검사를 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2만원 가량의 검사비를 부담해 치명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장비만 구입되면 이 검사를 일반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 넓혀

92.7.16

3년이상 생보자·모자가정도 자격

서울시는 지금까지 서울시 거주 5년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한정해 공급해오던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9월부터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94년까지 공급할 영구임대아파트 3만2천여가구를 5년 이상 거주 생보자만으로는 다 채울 수 없어

△3년 이상 5년 미만 거주 생보자 1천8백31가구 △모자가정 4천80가구에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3~94년에 공급할 1만3천35가구의 대부분은 2만~5만원의 납입금을 넣고 있는 청약저축자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가게 됐다.

시는 올해 공급할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8천8백84가구분으로 10% 가까운 입주포기율을 감안할 때 올해분만으로 5년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만6천여가구와 새로 자격을 얻은 3년 이상 생보자에게 전량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모자가정 가운데 60% 정도도 올해 안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